

수요 인터뷰

“청년 불자 운동 평생불사입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지난 16일 (가칭) 사단법인 '대불'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이사장에 명호근 상용증권사장(대불련 1기)을 선출했다.

이날 명호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불련 동문들이 앞장서 제2의 대승운동을 펼치자"고 말했다.

법인등록을 남겨놓은 이날 총회에는 전국에서 2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나. 학술원을 중심으로 정기, 순회법회를 개최하고 신앙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결사로는 6월, 6개월, 6년경사로 나누어 대학의 기본교육에 수행과 교학을 갖추도록하고 학술발표회 및 불교시민단체를 개최해 각분야 전문가를 시민의 광장으로 모셔 새시대불교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나의 수행일기

서석재 (충무처장관)

이따금 바쁜 나날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귀의한 마음을 지극히 하여 수행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같은 수행에 철저히 못한 사람은 뒤처지지 않을 수 없다.

위대 바쁜 하루하루이므로, 그렇다고해서 당장 말뚝 심신을 내어 정진을 할 사정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가장 진지한 수행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를 터득하려는 발원을 굳게 하고 있다.

내가 지난 몇해동안 허물 좋은 이름으로 조계사 신도회 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으나 그 직분에 충실한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 보충해야 할 공부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다.

내가 이루어야 할 공부로서의 숙제가 성철스님과 같은 무서운 정진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정수공이 대승통곡한 생로병사에 대한 깨달음은 늘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다.

조계사 신도회장 뿐 아니라 나는 의정단 상에서 일할 때에는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

세상 유익하게 하는 지혜터득 발원 아무리 바빠도 법구 몇구절 꼭 독송

서 의원 불자임을 자임해서 이런 저런 불사에 동참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깊은 심신을 내어온 꾸준한 공부는 할 겨를이 없게 이 나라 정치가 그렇듯이 나도 파란많은 시기를 살아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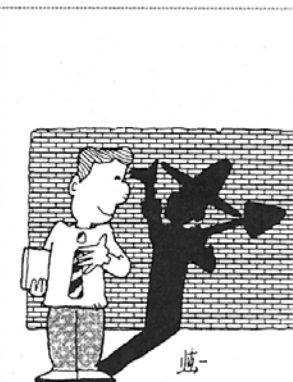
요즘은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법구경이나 금강경의 몇 구절이라도 독송하며 그 뜻을 새기는 틈을 내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수행이라고 내세울 처지가 아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내 어둠짙은 불자 행세라도 잘차 내가 부처님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이므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이기 십상이다. 이 나라의 공직자란, 더구나 그 공직자들을 관리하는 공직의 책임 있는 지리란 마치 농부와 같다.

농부는 공장 노동자와 같은 시간제의 일꾼이 아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논에 나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서 논에 나가 있어야 한다.

지척에 삼을 셋어 들고 집에 오다가도 밤중에 다시 불교를 들춰보러 나가야 한다. 이를



대불련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 이사장 명호근 씨

오랜 침묵을 깨고 합찬 출발을 다짐했다. 2만명의 대불련동문을 하나로 모아 불교발전을 꾀하고자 힘쓰고 있는 명호근 이사장을 만났다.

해외동포와 다각적 교류

—대불련동문회 숙원사업인 사단법인 '대불'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교계에 서는 엘리트불자들이 법인단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5월 1일 문화체육부에 법인등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년간 정열을 쏟았던 사업이어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

—그동안 대불련동문회는 서울 동문들의 친목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불'은 조직정비가 당면과제입니다. 먼저 중앙(서울 경기 강원), 대충(대전 충청), 호남(광주 전라), 부경(부산 경남), 대경(대구 경북)교구등 5개 지역을 연합체로 나누어 활성화 할 것입니다. 동문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5년단위로 묶어 6개의 세단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실무사업으로는 주소록에 주요 불교정보를 첨가해 정보화시대의 동문주소록이 되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장,독거노

학술원 중심 전문인력배출·신행결사 주력 2만동문 포교사로...사회활동도 적극 전개

다. 청년불자운동은 지에게 있어 '평생 불사'입니다. 대불련이 학생불교운동의 시작이라면 대불련 동문회는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설립하는 법인체는 청년운동의 완성을 위한 전초조직입니다.

앞으로 '대불'에서는 정국의 동문과 불자들을 불교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사회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동포와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와 정보를 한발 앞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불교계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불련 동문회가 담당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불교 인재배출입니다. 대불련은 가장 훌륭한 인재배출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동문회도 전회원을 포교사로 만드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불'은 회원들을 포교사로 양성하기 위해 이미 산하에 5~6년 과정의 불교전문인력양성소인 학술원을 두었습

인 결사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한글교육, 농어촌 특산물 직판사업도 계획중입니다.

대불련동문들 가운데는 승려 1백여 명등 의사 변호사 공무원 사업가들이 각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말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제역할을 하고있는 대불련 동문들이 곧 불교의 큰 재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새로운 신앙결사운동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의 목적, 취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대불련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대불련은 참다운 구도자, 생령가치 구현, 복지사회 건설이란 최대강령이 있습니다. 동문회도 대불련의 강령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63년 대불련이 창립되었던 때만해도 불교는 깊은 산사에서 펼쳐지는 기복 신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대불련이 현대화된 법회를 개최하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학교졸업후 동문들이

개인차원에서만 신행에 임하고 단체차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인체 '대불'은 동문들을 포교사로 만들기 위한 결사입니다. 포교하면서 공부하는 대불련동문이 되도록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사장님은 대불련 1기로서 30년 넘게 불교운동을 펼쳐온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불련은 어떻게 창립되었습니까.

63년 8월부터 활동시작

▲60년대 초반만 해도 산발적으로 대학이나 불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것만 63년 8월 서울소재 17개 대학과 육 해 공 삼군사관학교 대표들이 조계사에서 모였어요. 대학생 불교활동을 조직적인 연합회 활동으로 발전시켜 청년불교 운동에 앞장서고 불교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지요. 창립발기위원회를 발족하고 품은사에서 일민배의 원력으로 발원을 했습니

다.

당시 서울대에서는 서문각 박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창립멤버들이 서문각박사 댁에서 수행을 하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철철동문과 함께 탄허스님을 찾아 경전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했어요. 그때의 용병정진이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대불련도 X세대대로 불리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대간의 차이가 사회문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선배로서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답게, 불교인답게 공부와 수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후배들을 볼때마다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창립당시와 비교하면 공부의 미약한 편입니다. 교리와 수행이 결미된 불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준영 기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집대응식—

- 목가향 · 대구향 외
- 꽃이피어 · 진유어 · 꽃이피어 등

이주 924-9211 고남 925-4961

소모품 제공 · 봉사요원 파견

코리아 요가월

요가는 강인한 체력과 아름다운 몸매를 약속하며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발견한다.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03 (신인빌딩 402호) 전화: 738-1291, 356-4271(신)

불교서적의 모든 것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와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대 · 지역 · 취향 이따그리민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민(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04171-328(우민)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탈종공고

대한불교 미타종 종정 법하

주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21-24호

사찰명: 심연사

귀 중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이에 공고함 1995년 4월 일 심연사

주지 이해준 합장

정병원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내)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부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8/0 2층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092호※

주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6 6층 4번

문의처: 467-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연 합장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동,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 허성호(공법)

전화번호 주 아 4242-511, 4822-511, 4262-025 FAX 477-2751 호출기: 012-274-1727, 012-804-2025 휴대: 011-267-2510 주소: 서울시 중로구 삼전동 173-11(삼전동불교종합복지회관 옆)

탁자, 단집, 법상, 문떡, 불교조각

주요 불사 협력

- 불원(법원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승부(승려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상
- 의왕(의왕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떡
- 서울(법원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원한
- 용인(법원사) 대웅전 문떡
- 화진(법원사) 대웅전 문떡

대진(전승)공예사

현동문 011-282-4609 지 동 02-248-4609 금 정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대표: 趙貴玉 합장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최정칫솔

과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 온라인 종합예약시스템 096-01-239051(서울상사)

● 전화 (02)556-3076-7 ● 팩스 (02)556-3078

사무실 및 강의실 같이 쓰실 분

강의실 완비 15평

- 위치: 조계사 부근
- 보증금: 無 · 불교단체 환영
- 문의처: ☎ 738-1291

동산불교대학 동창회

암은 이렇게 완치된다.

비밀수술

암은 이렇게 완치된다.

비밀수술

암은 이렇게 완치된다

■ 완치된 암환자들의 투병기 수록

■ 사형선고를 받은 말기 암환자들의 대학 병원 자료와 완치되는 과정을 촬영한 C-T 필름 자료 공개

■ 이 한편의 책이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책

■ 저자의 젊은 청춘을 바쳐 연구한 신비의 天地散의 비법과 암 예방법이 수록되다.

책 문의는 도서출판 한성사 (02)841-7798, 388-0005

저자 배일주 합장